

중 수천억원 무안투자 뱅튀기? 실수?

무안군과 중국 합자투자협약서 없어

이슈추적 / 무안기업도시

<5> '중국 1조5천억원 무안지원' 중국을 취재하다
서군수 경제교류서 갖고 수천억원 유치발표

무안군이 최근 가진 협회를 통해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삼천 군수의 중국 투자유치활동 기간동안 중국의 평해그룹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했으나, 본사 확인 결과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본사는 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동행한 김교부 서무관, Korea 직원, 중국 한국대사관, 중국측 관계자 및 한국측 관계자 등 10여 명을 인터뷰했다.

이에 따라 군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몇몇 언론사들이 이를 전격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부처간 해당 기업들과 군의 발표에 따라 인근 지역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의 비용으로 서군수 일행은 동행하고 PR성 홍보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도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안 기업도시에 대한 지역 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비공개서 설립 및 실행과, 추진상황 점검 등 합법적인 대외이 사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날 1월 서삼천 무안군수와 이인구 무안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기업도시 관계자가 무안에서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 협업을 다녔다. 이 일행은 민주당 출신 이인구 의장과 강연원 군의원 그리고 일부 투자유치위원들도 동행했다.

군은 일행이 중국에서 국민 대접을 받았고 중국개발은행이 1조5천억원까지 지원할 의사가 있고, 이미 중국과 개발협력위원회가 승인 후 자금 송금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

했다. 그러나 군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유치협정의 주요 관계자들은 무안군과 중국 평해그룹과의 합자투자협약서는 없다고 잇따라 확인해왔다.

이는 서 군수가 최대 지적으로 내세운 무안기업도시를 위한 중국 자본유치의 대부분이 과대포장되어있음을 뜻한다.

▲정부 전문가들 "없다" 동행했던 김교부 최허가사무관은 "무안군이 진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본사인 확인에 대해 '김교부는 기업도시에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동행을 요청해 동행한 것'이라며 '투자협약서는 군수와 중국 기업장 선주시 관계자들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Kore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동욱 과장은 "양측의 투자협약서는 없고 서로 교류하는 환담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회관계자들 "모르겠다" 동행한 노영진 무안군의회 과장은 "나는 군의회 의원임을 수행해 동행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동행한 강연원 군의원 역시 "구분은 투자협약 의향이 있다는 것을 통역사를 통해 들었지만 투자협약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있다. 공개못해" 또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개발을 직접 주도했던 박성근 계장은 "동행은 했으나 이제는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내가 발원 사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투자협약서



무안군의 발표만 믿고 몇 군데 언론사들이 1조5천억원의 유치가 확정된 듯 보도하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청도대사관 신형근 총영사 "모르는 일" 코트라 등 전문관계자들 "투자협약서 없다" 무안군 "투자협약서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

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삼 전 부군수는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없지만 무안군과 선주시와의 투자협약서는 있다"고 주장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선주시와의 협약서에 대해 "협약서라기보다는 향후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투자협약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아마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어통역을 위해 선발된 김성택 씨는 "평해그룹과는 투자협약이 아니라 중국 기업도시에 참여하겠다는 의

향서 수준의 투자협약이 이뤄졌다"고 최종 발언으로써 중국과의 투자협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청도영사관 "모르는 일" 군은 이번 활동에 주중국대사관 청도 총영사관 총영사가 동행했다고 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 총영사는 신형근(외로 2004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도 신형근 총영사는 "무안군의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본사 인터뷰에서 밝혔다. 청

도 영사관에는 홍순창이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았다.

▲의문에 대한 군의 입장 서 군수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내 증가는 서 군수가 중국 측 인사와 찍은 사진과 언론에 공개한 투자유치 상황보고서이다.

군은 투자협약서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목포투데이(8일) 서 군수에게 의문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부탁했으나 7일까지 답변이 없었다. 군이 투자협동으로 간조한 사진은



- 발간일 2월 8일
- 권 - 목포투데이 2월 8일 목요일 제330호
 - 권 - 목포투데이 2월 8일 목요일 제330호
 - 권 - 목포투데이 2월 8일 목요일 제330호
 - 권 - 목포투데이 2월 8일 목요일 제330호

무안군은 중국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제교류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확인결과 중국 선주시와 무안 군과의 경제교류회 사진으로, 투자협약 조인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계속되는 의문 무안군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간 투자협약(이하) 조인식(이하) 무안군인 품종(이하)을 한 것에 의문(이하) 제기되고 있다. 이 내용은 교부서, 의향서, 협약서 등 국제간 협약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면 쉽게 허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사 확인결과 이번 투자유치활동에 동행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간 외교 문서양식에 대해 전혀 모르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중국 측 인사와 조인한 문서가 정확히 뭔지를 몰랐던 것.

그러나 서 군수와 무안기업도시 관계자, 군의 고위관계자들은 최소한 중국 평해그룹과 있었던 투자협약서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연 이러한 무리수를 볼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과연 군이 존재하지 않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단순실수인지 조작된 홍보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 박근영기자

무안의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

중국개발·한국투자담당 2개 SPC 설립

현재 무안군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중국과 한국기업가 공동 투자자(주)한국투자(신안) 기업도시 무안에서 국내 기업 담당은 무안기업도시개발(주) 2개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회사는 현재 중국 평해그룹과 한국기업(신안)이 20억 원을 출자해 지난 12월 23일 한 중국투자(신안) 기업 설립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철강 선주사를 방한해 평해그룹과 한국투자(신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삼우투자(신안) 평해그룹은 무안기업도시 내 50여만평을 분양받아 Made in Korea로 성유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할 계획이다.

목포투데이 애독자 시은 대전치 애독자님께 신간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1,000만원 규모 신청작

목포발전과 목포문화의 수수께끼

한글문고 베스트 셀러

목포투데이 애독자 50 명을 추첨해 뉴스투데이 출판사의 신간 도서 정태영의 '목포발전과 목포문화의 수수께끼' 와 김세곤의 '국화처럼 향기롭게' 2 권의 신간 도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월 31 일까지 2005년도 구독료를 납부해 주세요

- ▲대상자 : 2005년 10월 ~ 2005년 12월분 구독료 납부자에 한함
- ▲추첨 : 2006년 2월 10일 (금요일)
- ▲발표 : 2006년 2월 15일자 본보 게재
- ▲발송 : 2006년 2월 15일 통지 후 우편 발송

문의전화 : (061)279-5711, 3711

정태영 지음 (주)뉴스투데이 출판사 / 값 15,000원

김세곤 지음 / (주)뉴스투데이 출판사 / 값 9,900원

지역공공체 신문 목포투데이 투데이를 보면 목포가 보입니다.